

양희영 생애 첫 '메이저' 우승



양희영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KPMG 여자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개인 통산 6승이며 한국 선수로는 16개 대회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KPMG 최종 7언더파 281타 파리 올림픽 출전권 확보 유력

양희영이 다시 한번 오펙처럼 일어났다. 양희영은 24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서머미시의 사할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총상금 104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2008년 LPGA투어에 데뷔한 만 34세의 양희영이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희영은 2012년과 2015년 US여자오픈 준우승 두 번을 포함해 메이저대회에서 21번이나 메이저대회 톱10에 진입했지만 정작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작년에도 세브론 챔피언과 AIG 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의 L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보낸 양희영은 LPGA투어 통산 6승 고지에 올랐다.

우승 상금 156만 달러(21억6996만원)를 받은 양희영은 상금랭킹 92위에서 3위로 수직 상승했다.

양희영은 특히 이번 우승으로 파리 올림픽 출전을 예약했다.

오는 25일 발표하는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양희영은 현재 25위에서 경종 뛰어 15위 이내 진입이 유력하다.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 출전권은 25일 자 세계랭킹으로 확정된다.

15위 이내에 들면 국가당 4명까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지금은 15위 이내 한국 선수는 고진영(7위)과 김효주(12위) 둘뿐이다.

양희영의 이번 우승으로 개막 이후 15개 대회 동안 이어졌던 한국 선수 우승 갈증도 시원하게 씻어냈다.

양희영은 방송 인터뷰에서 "늘 메이저 우승을 갈망했다. 은퇴하기 전에 꼭 메이저 우승을 하고 싶었다. 마침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양희영은 시즌 개막전 공동 22위 이후 톱10 입상 한번 없이 다섯번이나 컷 탈락이라는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길고 좁은 페어웨이와 단단하고 빠른 그린으로 무장한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양희영은 단 선수로 변신했다.

버디 기회를 누구보다 자주 만들어냈고 버디 퍼트는 거기로 집어넣었다.

이번 대회에서 나흘 동안 한 번도 오버파 스코어를 적어내지 않은 선수는 양희영과 엘리 유잉(미국) 둘 뿐이다.

2타차 선두로 나선 최종 라운드에서도 양희영은 혼자 다른 코스에서 경기하는 선수처럼 똑박똑박 타수를 줄여 일찌감치 우승을 예고했다.

고진영은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치열한 준우승 경쟁에서 살아남아 3타차 공동 2위(4언더파 284타)에 올랐다.

1타를 줄인 세계랭킹 2위 릴리아 부(미국)과 1타를 잃은 아미시타가 고진영과 함께 공동 2위에 합류했다.

1언더파 71타를 친 유해란이 공동 9위(1언더파 287타)로 상승, 한국 선수 3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2타를 줄인 김효주와 이븐파 72타를 적어낸 최혜진은 나란히 공동 16위(1오버파 289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불방망이 여세 몰아 승차 벌린다

타이거즈 전망대 KIA, 롯데·키움과 6연전

KIA, 롯데·키움과 6연전
알드레드 가세... 선발진 안정
나성범·김도영 등 화력도 활활
정해영 어깨 염증... 불펜은 비상

KIA 타이거즈가 뜨거운 불방망이를 앞세워 승차 벌리기에 나선다.

KIA는 지난주 홈에서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연달아 워닝시리즈를 만들며 4승 2패를 기록했다. '4'를 기록한 KIA는 5연승을 달린 삼성 라이온즈에 2경기 앞선 1위다.

돌아보면 2패가 아쉽기는 하다.

KIA는 19일 LG전에서 7회 6실점을 하면서 5-7 역전패를 당했다. 23일 진행된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한화의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의 홈런포가 이어졌지만 8-9 재역전패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KIA는 25일부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에 나선다.

'사직 악몽 지우기'와 '우위 이어가기'가 이번주

속제다.

KIA는 앞선 사직 원정에서 충격의 스윙패를 기록한 뒤 롯데전 5연패까지 기록했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5패. 오랜만에 만나는 키움과는 4전 전승으로 앞서 있다.

지난주 화력의 힘으로 4승을 만들어냈지만 '불펜'은 여전히 고민이다.

제임스 네일로 문을 여는 선발진은 안정적이다. 양현종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임기영이 5.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챙겼다.

월 크로우를 대신해 선발로 투입된 캠 알드레드도 LG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KIA는 경쟁력 테스트를 위해 두산 베어스, KT 위즈에 이어 LG까지 상대할 수 있게 로테이션을 맞췄고, 알드레드는 합격점을 받았다.

KIA의 강점인 타선의 흐름도 좋다.

지난주 0.330의 팀 타율을 기록한 KIA는 10개의 홈런도 기록하면서 파워를 과시했다. 챔피언스 필드를 뜨겁게 달군 홈런도 이어졌다.

KIA는 6월 20일 LG와의 경기에서 8회말 최형우의 동점홈런에 이어 나온 나성범의 백투백 홈런으로 6-5 승리와 함께 워닝시리즈에 성공했다.

김도영의 역사적인 홈런도 연이어 나왔다.

20일 김도영이 KIA의 시즌 첫 만루포를 장식했고, 23일에는 한화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담당 밖으로 날리면서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20-20' 클럽에 가입했다.

'주장' 나성범은 지난주 홈런 포함 11개의 안타를 생산하면서 0.458의 주간 타율과 7타점을 기록했다. 나성범의 방망이가 분개에도 올랐고, 오투리 부상으로 빠졌던 김선빈도 훈련을 재개하면서 내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해줘야 할 선수들이 활약 속 경쟁 효과까지 더해 KIA의 야수진의 움직임은 좋다.

위기의 불펜, 김도영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KIA는 지난 23일 한화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아찔한 장면을 마주했다.

8-8에서 마운드에 오른 마무리 정해영이 김태연에게 역전 솔로포를 내준 뒤 이도윤과의 승부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해영은 1, 2차 검진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 염증 진단을 받았다.

정해영이 큰 부상은 피했지만 휴식·치료 후 후반기에 복귀가 예정되면서 불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전역 후 새 팀에서 첫 시즌을 보내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김도현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장관 강국이 된 KIA에서 김도현은 150km 넘는 공을 뿌리는 귀한 우완 강속구 투수다. 여기에 커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속구와 느린 변화구의 조합이 좋다.

김도현이 팀의 위기를 넘기고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순위싸움, 관전은 '중원'

K리그1 오늘 수원FC와 원정경기
무더위에 선수들 체력 고갈
수비서 밀리며 패배 잇따라
11위 대전까지 승점 3점차

광주FC의 숨가쁜 질주가 계속된다.

광주가 25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나선다.

지난 19일 부천FC 안방을 찾아 코리아컵 16강전을 치른 광주는 22일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였다.

무더위 속 연달아 원정 두 경기를 치른 광주의 성적은 1승 1패. 부천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둔 광주는 대전에는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4월 홈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무기' 문민서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역전패를 당했다. 앞선 대전전과 마찬가지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내주면서 기록된 패배다.

비슷한 패턴의 패배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렸다. 화력과 자신감으로 분위기를 끌고와야 한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패자가 됐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광주가 8승 2패로 앞서 있다. 지난 시즌에는 3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흔들리는 수비에 연이어 풀타임을 소화한 허을, 정호연 등 주축 선수들의 체력도 고민이다. 앞선 경기에서 센터백 변준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 등 부상도 겹쳤다.

코리아컵을 통해서 실전감각을 끌어올린 김경재, 조성권, 신장우 등 백업 자원과 베테랑 수비수 안영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수비 싸움에서 밀리면서 연달아 승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 상승세의 공격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베카가 앞선 경기에서 시원한 골을 장식하는 등 컨디션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애스 업지성도 대전원정에서 베카의 골을 도왔고, 앞선 김천상무전에서 쉐기골도 장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의 발끝도 매섭다.

문전에서 침착한 승부로 골 결정력을 높여 초반부터 분위기를 끌고 가야 한다.

지난 주말 수원FC는 서울원정에서 0-3 패배를 남기는 등 2경기 연속 3실점하며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중원 싸움에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수원FC는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를 영입해, 서울전 후반 교체 투입으로 손발을 맞췄다. 이승우와 지동원이 준비하고 있는 공격진과 함께 손준호가 경계 1순위다.

광주는 앞선 패배에도 6위는 지켰다. 하지만 11위 대전까지 승점 3점 차 안에서 광주를 쫓고 있다.

광주는 수원 원정 뒤 30일에는 홈에서 제주유나



광주FC가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장식한 엄지성을 앞세워 25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광주FC 제공>

이트드와 경기를 갖는다. 살얼음판 순위 싸움 속 무더위까지 찾아왔다. 이정호 감독의 '로테이션'이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실업검도팀 '탑솔라' 전국 여자 선수권 단체 우승

광주실업검도팀 탑솔라가 전국여자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탑솔라 검도단 정서현, 박세연, 허운영, 전지윤은 지난 22일 충북 음성 대관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17회 미르치과기 전국여자검도선수권대회' 대학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이들은 매치스코어에서 1-1로 비졌지만, 포인트에서 2-1로 앞서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탑솔라는 준결승에서 서울시검도회에 2-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선봉 정서현이 부산시체육회 배지원에 머리치기에 이은 손목치기로 2-0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한 뒤 중경 박세연이 상대 이예진에 0-0으로 비겼다.

이어 주장 허운영이 김서연에게 0-1로 패하며 매치스코어 1-1이 됐지만 탑솔라가 2-1로 포인트에서 앞서 대회 정상에 올랐다.

오상은 탑솔라 감독은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해줘서 얻은 결과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사기를 증진시켜 앞으로도



탑솔라 검도단이 제17회 미르치과기 전국여자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단 좌측부터 정서현, 허운영, 박세연, 전지윤. <광주시체육회 제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전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